

광주서 '거꾸로 표지판' 장기간 방치... 운전자 혼란

지난달 공사장 트럭 추돌에 회전 상습정체...운전·보행자 위험 초래
지자체·경찰 등 관리 소홀 '빈축'
본보 취재로 하루 만에 시정 조치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만한 일 아닌가요? 도로표지판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건 태어나서 처음보네요.”

교통량이 많은 광주 도심 한 가운데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이 한 달 넘게 거꾸로인 채 방치돼 운전자 등 시민들이 큰 혼란을 빚었다. 더욱이 해당 도로는 지하철 공사로 매번 차선이 바뀌는데다, 표지판이 안내하는 곳은 횡단보도라서 보행자들의 안전 또한 위협을 받았다.

지난 14일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도로. 남구청 앞 백운교차로에서 조선대병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 한 가운데 '호보비'라고 적힌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이 표지판을 따라가니 도로를 벗어나 외딴 골목길로 안내됐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해당 표지판은 거꾸로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이었다. 당초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가리켜야 할 것이 180도 뒤집어진 채로 매달려 다른 방향의 길로 안내했던 것. 초행길이나 초보 운전자의 경우 자칫 길을 잘못 들어서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지난 14일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도로에 '좌측 비보호 표지판'이 거꾸로 매달려 다른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왼쪽) 광주경찰 관계자가 '좌측 비보호 표지판'을 재설치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하루 평균 약 2만대의 많은 차량이 오간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수시로 차선이 변경,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상습 정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거꾸로 표지판'이 설치되면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도치 않게 '거북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

직장인 방태현(24)씨는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됐다. 익숙치 않은 상황에 표지판 마저 이러니 출근길마다 가슴을 졸인다”며 “한번은 '내가 잘못본 건가' 싶어 넘겼는데, 알고보니 아예 잘못 설치된 거더라. 정말 당황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표지판이 반대로 남구청에서 조선대방향 운전자들을 향하게 됐다. 더욱이 표지판 양쪽으로는 횡단보도로 길이 뚫려 이따금 유턴하는 운전자들이 이곳을 아무렇지 않게 오갔다.

30대 운전자 정모씨는 “비보호 표지판이 잘못 설치된 건 알았지만, 방향만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지 아예 뒤집혔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공사로 매번 차선이 바뀌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통행이 되는 줄 알았다. 지나가면서도 '보행자와 부딪힐 것 같다'는 우려를 하긴 했다”고 말했다.

18일 기준 신고된 인명·사고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아파트에 거주중인 최모(68)씨는 “수십 년간 동네에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공사로 원래 위험한데 교통표지판까지 이러니 더 무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인 광주시는 ‘시행사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에서 해당 도로의 위험도·통행량 등을 고려해 자치구(지자체)에 설치 통보한다. 4차선 미만은 해당 자치구가 설치·관리하고 이를 넘기면 시가 하는 식이다. 이 도로는 4차선으로 광주시가 관리주체가 된다. **2면에 계속**

글·사진·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전남 김 수출 3억달러 돌파 '단일품목 사상 최초'

전국 36% 차지... 김산업 육성 성과
도, 신규어장·친환경 생산면적 확대

전남 김 수출액이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초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전남이

3억6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전남의 김 수출액은 2010년 1000만 달러(전국 대비 7.8%)에 불과했지만, 올해 3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국 대비 36%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 '김 수출 3억 달러 프로젝트'와 혁신적 품질관리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김산업 종합 육성계획'을 세워 시행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유기 수산물 인증 확대와 김 양식어장 인 증부표 보급, 위생관리 장비 보급 및 HACCP 시설 지원, 노후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마른김 검사소 구축 등 위생과 품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것이 한몫했다.

김산업 진흥구역 4개소를 지정·지원하

고,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과 수출 제품 전략적 통합 마케팅 등으로 신규 시장 개척, 수출시장 다변화에 노력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전남도는 앞으로 신규 어장 면적 확대, 외해어장 개발과 기후변화를 대비 신품종 종자 개발, 친환경 김 생산 면적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김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식품 수출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국내외 바이어가 전남을 찾아와 마른김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제 마른김 거래소' 운영 및 '대규모 마른김 전용 물

류시설 확충' 등 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구축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김 산업은 종자·생산·가공·수출 등 단계별 부가가치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김 수출 7억 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고부가가치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작
사기군 브로커